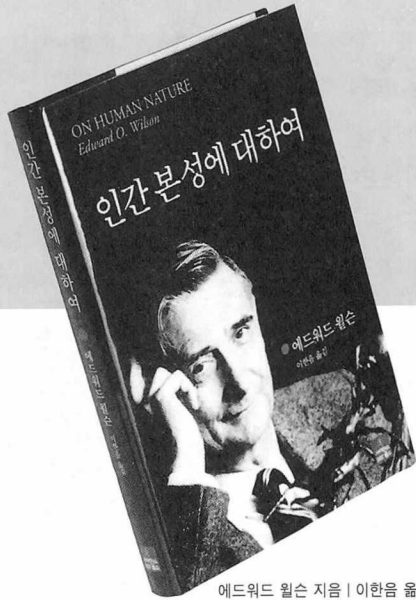


# 인간의 본성과 문화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병훈 | 전북대 생물과학부 교수



에드워드 윌슨 지음 | 이병훈 옮김  
사이언스북스/A5신/342면/15,000원

이 책은 이미 22년 전(1978)에 나온 책이다. 저자가 이에 앞서 1975년에 펴낸 《사회생물학의 새로운 종합》은 당시 사회에 건잡을 수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동물 사회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이른바 사회생물학을 집대성한 이 책이 마지막 장에서 인간을 다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행동은 물론 문화도 유전적 바탕에서 발전된 것이며 진화의 산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도 종교도 생물학적 기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희비에락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도 뇌의 대뇌변연계가 발휘하는 생존과 번식의 적응장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 종과 사회성의 기원 탐구해

이번에 출간된 《인간 본성에 대하여》는 먼저 나온 책의 마지막 장의 확대 해설판이다. 이 책은 모두 9개장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앞의 4개장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서 종(種)과 사회성이 출현하는 기원에 관한 원리와 문제를 다루고, 다음 4개장은 이런 원리에 비춰봤을 때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네가지 특성, 즉 공격성, 성, 이타주의, 그리고 종교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냐를 말하고 있다.

우선 1장에서 저자는 신이 물질의 최소단위인 쿼크와 전자의 기원으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생물종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단언한다. 종의 기원은 유전적 우연과 환경적 필연에서 비롯되며 결코 유전적 역사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2장에서 '인간의 사회성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냐'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만 남아 있다.

문화가 인간의 전유물이며 유전자로부터 탈출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어 인간의 정신은, 예를 들어 언어발달상 단어들을 일정한 순서로 모아 배열하도록 생득적으로 구조화돼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결코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첨예한 이슈가 되는 문화적 진화가 그 다음에 논의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하는가? 꿀벌의 행동이 암시하는 결정론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에게도 기껏 정신 내의 '자유의지'일 뿐이며 유전적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자유의지는 한낱 허상일 뿐이다.

### 자연과학과 인문학 아우르는 통찰력 돋보여

이 책을 보면 두가지 점에서 놀라게 된다. 하나는 인간의 사회행동도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자가 일개 생물학자면서도 문학, 철학, 사회학, 그리고 언어학 등을 꿰뚫는 지식과 통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탁월함은 그가 이 책으로 풀리처상을 받고 12년 후에 펴낸 《개미》로 같은 상을 다시 받았다.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문제작이면서 손꼽히는 역자가 늦게나마 우리말로 출판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자는 중형무진의 난삽한 논리들을 헤집고 따라잡아 비교적 매끄러운 문장으로 옮겨 놓았다. 다만 약간의 흠이 보이지만 (의식(ritual)을 '의례'로, 과시(display)를 '표현'으로, 지향동작(intention movement)을 '의도된 움직임'으로 번역한 것 등) 큰 줄기를 살려나간 성과에 비하면 옥에 티로 생각된다.

특히 초기에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치부돼 갔던 수난과 우여곡절을 치른 사회생물학은 등장한 지 25년을 지나는 동안 인류학,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의학 등에 도도히 파급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높은 담벽이 가로막고 있다. 사회생물학이 지나친 과학주의, 과학적 유물론, 극우적 이데올로기 학문 등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구미에서는 이미 논쟁의 이슈로서는 거의 지나갔고 이제 초점은 범 패러다임으로서 진화생물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인간유전자계획이 완성되면 사회생물학은 인간의 본성과 문화를 보는데 한층 새로운 눈과 빛을 얻어 다윈주의를 더욱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국내에서 뒤늦게나마 두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지식의 통일은 물론,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내다볼 준비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연과학도들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